

107만 화성특례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

취임사

존경하는 107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제9대 화성특례시장 정명근입니다.

저를 믿고 화성의 미래를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더 큰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저 개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화성의 더 큰 미래와
중단 없는 성장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민선9기 화성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고 계시는
화성미래비전위원회 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화성특례시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를 완성했고,
4개 구청 시대를 열었습니다.

AI와 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기반을 마련했고,
광역 교통망과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대한민국 1등 도시로 우뚝 서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화성은
전국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이며,
가장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희망의 도시입니다.

기업이 모이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AI 혁명과 산업 대 전환의 시대,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화성은 더 큰 도전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선9기 화성특례시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9기 화성특례시의 비전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는
‘성장’ , ‘포용’ , ‘공정’ 입니다.
성장은 행복을 만들고,
포용은 일상을 지키며,
공정은 새로운 기회를
보장하는 가치를 담아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민선 9기 화성특례시는
도시 전 분야에서 ‘행복한 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성장은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어야 합니다.

이제 화성을 전국 1위 제조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미래 산업의 심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성장은 곧 화성의 미래입니다.
AI와 반도체, 첨단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의 거점으로서,
화성이 그 선두에 서겠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산업 허브를 조성하여
디지털 전환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 인재와 혁신기업이 모이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기업과 협력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그 성장의 결실이 지역 상권과 골목 경제까지 퍼져
시민 모두가 ‘성장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어디든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전해 주신 말씀은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더 빠르고 편리하게 출근하며,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남북을 더욱 촘촘하게 연결하여
화성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광역·급행버스와 공항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심야 자율주행 순환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GTX와 광역 철도망을 넓히고,
오랜 시간 기다려 온 동탄 트램은 연내 착공하며,
화성을 한 바퀴 도는 순환철도 도입을 준비하는 등
시민의 하루를 편리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성장은 결국
시민 모두의 행복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성장”을
민선9기의 첫 번째 사명으로 삼겠습니다.

민선 9기 화성특례시는
모든 시민을 ‘포용’ 하는
따뜻한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성장의 혜택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세대에 속하든,
누구나 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 편의 시설과 문화 시설,
교통과 교육,
의료와 복지의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장과 변화가 일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지만,
모든 시민이 그 가능성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의 혜택은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며,
누구도 변화의 뒤편에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민선9기 화성특례시가 따뜻한 기본사회 실현을
시정의 핵심 과제로 삼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시행한 것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국가정책 모델을
화성에서 선도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뒤처지는 시민이 없도록
시민 누구나 금융과 AI 교육은 물론,
기본적인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냥드림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까지 살피는
그냥해드림 사업 추진 등
화성만의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민선9기 화성특례시는
시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행정이 정책을 시민에게 설명하는 시대를 넘어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화성동행기구를 중심으로
진정한 협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의 공동체를 만들고,
따뜻한 기본사회, 그 동행의 가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9기 화성특례시는
더 바른 ‘공정’ 과 투명한 행정 혁신으로
시민의 신뢰를 높여 가겠습니다.

공정은 같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출발선과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미래세대가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정한 도시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답게
청년이 일자리를 찾는 도시를 넘어,
창업하고 도전하며,
꿈을 실현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행정도 공정해야 합니다.
원칙은 더욱 단단하게 지키고
절차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행복한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현해 가는 주체는
바로 공직자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문화는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과 원칙이 바로 서는 행정을 실천합시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활 속 불편과 위험 요소를
발굴하여 개선합시다.

AI 공무원 임용으로 반복 업무는 줄이고,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에 집중합시다.

존경하는 107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화성은 오랜 시간 축적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이 살아 숨 쉬는
유서 깊은 문화 도시입니다.

각 구청별 특색이 뚜렷이 구분되며,
산업과 문화의 모습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어느 한 가지 모습과 색깔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때로는 화성의 일부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비치기도 하지만,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가 되어,
화성만의 정체성을 만들고
공동 가치를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 화성의 더 큰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화성에서 우주의 화성까지!

우주를 향한 인류의 도전이 현실이 되는 이 시대에,
화성이 그 무한한 가능성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는
대 전환의 시기에
화성특례시는 변화와 혁신의 선두에 서서
시대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발전의 중심축으로서 당당히 우뚝 서겠습니다!

이제, 화성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더 큰 성장,
더 넓은 포용,
더 바른 공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더 큰 화성특례시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